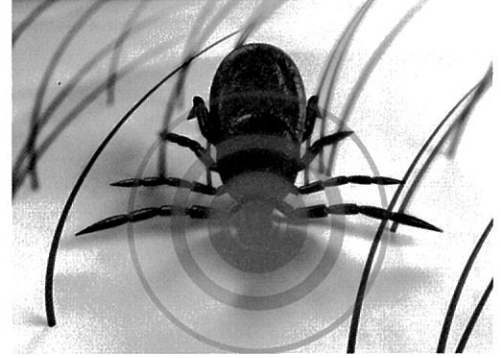




살인진드기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예방도 거뜰

이름조차 생소한 SFTS 때문에 전국이 난리다. 바로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자극적인 이름의 증상이 그것. 치료약이 아직 없다는 것이 지나친 공포심을 확대시키고 있다.

글 이효정(이코노미리뷰 기자) 도움말 보건복지부



“언제 물릴지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으며, 안 물리는 게 상책이라니 공포 그 자체다!”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 지난 5월 21일 서울 대병원에서 SFTS(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에 의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6월 18일 기준 SFTS를 확진받은 환자는 제주 4건, 강원 2건, 충남·경북·경남·전남 각 1건 등 모두 10건에 달했다. 이 중 5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특히 7~8월 농촌의 본격적인 농사 시기, 행락객들의 여름철 등산 및 야외활동 시기 등과 진드기의 본격 활동 시기가 맞물리며 의심 환자는 물론 확진 환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어서 걱정이 앞선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고 알려진 가운데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SFTS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이 지나친 대응을 불러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대처 방안을 믿게 한다는 것이다. 불안한 시민들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발표를 예의 주시하며 개인적으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야외에서 위생에 더욱 신경 쓰고 풀숲이 우거진 곳에 출입을 삼가는 한편, 다양한 진드기 퇴치제나 살충제를 대량 구매하고, 심지어 고가의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를 구매하기까지 그 방법도 다양

하다. 자칫 안일한 대처가 불러올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하고 효과 없는 대처 방법이 유행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SFTS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포심보다 침착함이 우선되어야

SFTS는 2011년 11월 말 중국이 국제 학술지에 관련 내용을 처음 발표하면서 그동안 중국 내 국한된 감염병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후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이 SFTS에 의한 사망자가 확인되면서 사회적 문젯거리로 대두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FTS의 치사율은 중국에서 발표한 30%보다 훨씬 떨어지는 6%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세계임상감염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다. 치사율이 20~30% 정도로 알려진 일본뇌염 바이러스보다 낮은 수치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풀숲이나 야산에 서식하는 작은소참진드기가 SFTS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은 0.5% 이하(100마리 중 1마리 미만)로 분석되고 있다.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렸다고 무조

건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란 소리다. 앞으로 이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발생 보고가 증가할 경우, 치사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SFTS에 효과적인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치료를 전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SFTS 증상에 따라 적절히 의학적 치료를 함으로써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도 있기 때문. 때로는 자극적인 문구,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너무 많은 정보들이 지나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포심에 휘둘리기보다는 침착하게 SFTS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SFTS의 대표적 증상과 대처법

SFTS에 감염되면 보통 진드기에 물린 후 1~2주 정도에 증상이 나타난다. 30~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함께 나타난다. 또 의식장애, 경련, 혼수와 같이 신경계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예방이 상책이다. 진드기가 주로 있는 곳은 풀이 우거진 곳이나 야산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서 활동할 때에는 진드기가 옷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토시와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풀밭에 머무를 경우에는 풀밭 위에 직접 눕거나 자지 말고 돛자리를 사용하며, 작업이나 야외활동이 끝난 후에는 입었던 옷이나 사용한 돛자리

에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급적 깨끗하게 세탁하도록 한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해충 기피제를 소매 끝이나 바지 끝 등 곳곳에 적절하게 뿌려주면 진드기를 물리칠 수 있다. ☺



SFTS 관련부서 연락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관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TEL 043-719-7113~36 FAX 043-719-713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심환자 신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TEL 043-719-7165, 7171, 7174 FAX 043-719-7189

